UIT Report Vol.12, No.1, pp.191~205, 1981 연구논문집 제12권 제1호 pp.191~205, 1981

1980學年度 울산공대 新入生 實態調査

金 松 日
교 양 과 정 부
(1980. 11. 26 접수)

〈要 約〉

本 研究는 1980年學度 울산공대 新入生들의 現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980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10월 17일 사이에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되었다.

調査 對象 學生數는 891名으로서 그 내용은, (1) 신입생의 환경적 특성, (2) 人生觀과 當面 問題, (3) 大學進學 및 전공계열선택, (4) 大學生活에 대한 인상, (5) 教授, 學生關係, (6) 嗜好 및 異性觀에 관한 것으로 획득된 자료는 백분율로 처리되었다.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UIT Freshmen(1980)

Kim Song Il
Department of Basic Studies
(Received November 26, 1980)

〈**Abstract**〉

This Survey was conducted by the author from Oct.6 to Oct.17, 1980, toward 891 freshmen of the Ulsan Institute of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investigate their actual conditions on the basis of questionnarie The questionnarie were asked the following problems and analysed in percentage in every item.

(1) Private affairs and Home circumstances.
(2) Students' view of life and Urgent problems.
(3) Entrance and Choice of department.
(4) Students' impression on college life.
(5) Rela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6) Students' taste and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Ⅰ. 研究의 目的

급격한 社會變化와 격증하는 大學人口의 量的 팽창은 오늘의 大學을 大量主義의 形態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全人教育을 위한 各種 制度的 장치나 教授·學生間의 對話의 기능이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어 새로운 對策의 必要性을 절감케하고 있다. 물론 주위의 여건이 여하하던지 간에 大學은 學生들을 바람직한 方向으로 效果的이며 科學的인 生活指導를 해야할 必要性과 責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學生들의 生活指導는 對象學生들에 對한 정확한 理解와 充分하고 유용한 資料의 바탕위에서 效果 기대가 가능한 것이다. 많은 大學의 研究기관(大學의 學生生活指導의 전문기관인 學生指導研究所나 相談室)에서는 그들의 여러가지 기능 및 역할수행의 일환으로서 학생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學生調査 研究活動을 하고 있음은 이러한 理由에서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學生들의 生活환경이 어떠하며 그들의 實生活, 大學生活에 어떠한 생각과 態度를 갖고 있는지에 關한 구체적인 資料가 없었다. 따라서 學生들의 개인생활 및 大學生活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通하여 現在의 상황을 개진해보고

자 하는 것이 本 硏究의 一次的 目的이다.

또한 이러한 調査 硏究의 結果들은 現在의 學生集團에 관한 實態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資料로서 뿐만아니라 앞으로의 계속적인 硏究 結果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학생들의 變化를 豫測해 볼 수도 있으며, 뿐만아니라 變化가 發見되었을때 그러한 變化에 對應할 수 있는 對策을 構想하는데 有用한 資料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立場에서 本 硏究에서는 우선 新入生集團을 對象으로 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必要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基礎的 變因들에 대한 調査를 통하여 新入生 集團의 特性을 分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先行 硏究가 없어 在學生과의 比較가 不可能함은 유감이다.

Ⅱ. 調査 內容

本 調査의 內容은 다음과 같은 6個部分 40個 問項으로 되어 있다.

1. 新入生의 환경적 特性(14問項)
2. 人生觀과 당면문제(5問項)
3. 大學進學 및 전공계열선택(6問項)
4. 大學生活에 對한 인상(6問項)
5. 敎授·學生關係(4問項)
6. 嗜好 및 異性觀(5問項)

Ⅲ. 硏究 方法

1. 對 象

1980學年度 新入生 全員을 調査對象으로 삼았으며 계열별로 調査된 人員은 다음 〈表 Ⅲ-1〉과 같다.

〈表 Ⅲ-1〉 응답자 分布

계열 / 구분	기계 공학 계열	일반 공학 계열	토목 건축 계열	공업 계열	경영 계열	인문 계열	계
정 원	498	337	76	86	94	56	1,061
응답자	440	203	34	81	82	51	891
%	88.4	60.2	44.7	94.2	87.2	91.1	83.9

2. 調査 期間 및 方法

調査는 원래 입학초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校內外 事情으로 1980年 10月 6日부터 10月 17日까지 2주간에 걸쳐 實施되었으며 강의時間을 利用하여 質問紙를 배부하고 즉석에서 記入케하여 회수하였다.

3. 調査道具 및 資料處理

本 調査 硏究에서는 앞에 밝힌바 있는 내용의 40個 問項으로 구성되어 있는 硏究者가 作成한 質問紙를 使用하였다. 資料處理는 補助學生 10名이 硏究者의 指示下에 反應빈도수를 집계하여 그 반응비율을 필요에 따라 百分率로서 統計處理하였다. 또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은 반올림 하였다.

Ⅳ. 結果 및 解釋

1. 新入生의 環境的 特性

A. 個人 身上

1) 本籍地別 現況

〈表 Ⅳ-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남, 경북, 부산, 서울, 충남의 順으로 分布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本校의 所在地인 경남과 부산 출신이 494名으로 全體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表 Ⅳ-1〉 본적지별 分布

	기계	일반 공학	토건	공업	경영	인문	계	%
서 울	29	11	0	1	2	1	44	4.9
부 산	60	28	7	11	5	2	113	12.7
경 기	16	9	1	1	1	0	29	3.3
강 원	27	9	0	3	2	1	42	4.7
충 북	11	7	0	1	0	1	20	2.2
충 남	25	9	1	2	1	1	39	4.4
경 북	88	29	7	13	15	5	157	17.6
경 남	148	93	17	35	51	37	381	42.8
전 북	2	1	0	1	2	0	6	0.7
전 남	11	5	1	1	1	2	21	2.4
제 주	23	2	0	12	2	1	40	4.5
계	440	203	34	81	82	51	891	100.0

2) 出身高校別 分布

출신고등학교별로 本校에 入學한 學生 現況을 보면 本校가 위치한 경상남도內 高校졸업생이 34.3%, 인근 부산市內 고교졸업생이 24.7%로서 全體의 59%를, 인접 경상북도內 고교 졸업생이 1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地方大學과 소속 지역사회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양자의 發展에 重要한 變數라고 보

았을 경우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출신 고등학교는 〈表 Ⅳ-2〉에 나타난 바와 같이 全國에 分布되어 있으며 그 수는 194個校이다. 개교 10주년을 맞이한 本校가 全國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며 濟州道內高校出身學生의 수가 40名에 달하고 있음은 特記한 事實이다. 검정고시 合格者는 단 1명이다.

〈表 Ⅳ-2〉 出身高校 所在地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검정고시	계
기계	41	110	9	29	9	23	79	104	2	10	23	1	440
일반공학	16	61	8	10	5	8	20	68	0	5	2	0	203
토건	0	17	1	0	0	1	5	10	0	0	0	0	34
공업	1	19	1	4	0	2	3	37	1	0	13	0	81
경영	4	9	2	2	0	1	14	46	1	1	2	0	82
인문	2	4	0	2	0	1	0	41	1	0	0	0	51
계	64	220	21	47	14	36	121	306	5	16	40	1	891
%	7.2	24.7	2.4	5.3	1.6	4.0	13.6	34.3	0.6	1.8	4.5	0.1	100
출신교수	37	29	9	13	5	13	34	37	3	8	6		194

〈表 Ⅳ-3〉 연령分布(만 연령)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계	평균
기계	2	90	169	125	14	3	3	13	12	4	0	440	19.6
일반공학	2	36	99	46	10	1	0	3	4	2	0	203	19.4
토건	0	6	14	6	2	1	1	1	2	0	1	34	20.0
공업	0	19	46	14	1	0	1	0	0	0	0	81	19.0
경영	2	10	30	30	3	0	0	2	3	1	1	82	19.8
인문	0	7	15	24	4	0	0	0	1	0	0	51	19.6
계	6	168	373	245	34	5	10	19	22	7	2	891	19.5
%	0.7	18.9	41.9	27.5	3.8	0.6	1.1	2.1	2.5	0.8	0.2		

3) 연령별 分布 및 再修現況

〈表 Ⅳ-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건계열이 平均 20.0세로 가장 많으며, 경영계열이 19.8세, 인문계열이 19.6세의 順이다. 全體的으로 분때 만17세부터 27세 까지 다양한 分布이며, 평균 연령은 만 19.5세이다. 이는 〈表 Ⅳ-4〉처럼 再修경험이 있는 學生이 全體의 약 34%를 차지한 결과이다.

재수경험이 있는 학생이 가장 많은 계열은 인문계열로서 55%가 재수경험이 있으며 경영계열(51%) 토건계열(41%)의 順이며 인문사회학부가 工學部보다 재수율이 높게 나타나 있다. 全體的으로 분때는 33.7%(300名)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재수경험을 갖

〈表 Ⅳ-4〉 재수경험 有無 ( )안 백분율

	기계	일반공학	토건	공업	경영	인문	계
없음	290(65.9)	143(70.4)	20(58.8)	75(92.6)	40(48.8)	23(45.1)	591(56.3)
1년	118(26.8)	49(24.1)	10(29.4)	5(6.2)	33(40.2)	22(43.1)	237(26.6)
2년	25(5.7)	11(5.4)	2(5.9)	0(0)	5(6.1)	4(7.8)	47(5.3)
3년	6(1.4)	0(0)	0(0)	1(6.2)	2(2.4)	1(1.9)	10(1.1)
그 이 상	1(0.2)	0(0)	2(5.9)	0(0)	2(2.4)	1(1.9)	6(0.7)

고 있음은 生活指導面에서 크게 고려되어야 할 事項으로 이미 실패감을 경험한 바 있는 이들에게 自信感, 心理的 安定感, 愛校心을 갖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4) 軍복무 현황

다음〈表 Ⅳ-5〉에서와 같이 군복무를 마친 學生은 全體의 5.8%에 불과하며 미필자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新入生들에 對한 兵事關係 오리엔테이숀도 重要한 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表 Ⅳ-5〉 군복무 현황

	제 대	미 필	방위근무	면 제
기 계	28	399	10	3
일반공학	10	188	1	4
토 건	5	27	2	0
공 업	1	79	0	0
경 영	7	71	1	3
인 문	1	34	0	16
계	52	798	14	26
%	(5.8)	(89.6)	(1.6)	(2.9)

5) 宗敎別 現況

全體的으로 基督敎가 17.5%, 佛敎가 18.5%로 佛敎가 약간 우세하나 비슷한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宗敎를 갖지 않고 있는 學生이 58.7%에 달하고 있다. 特히 경영 人文계열은 58.4%가 宗敎를 갖고 있음에 反해 工學部는 41.1%만이 宗敎를 갖고 있어 전공계열에 따른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全體 對象學生中 단 1名만이 天道敎 信者이다.

〈表 Ⅳ-6〉 宗敎別 分布

	기독교	천주교	불 교	천도교	없 음	무응답
기 계	81	19	79	1	256	4
일반공학	31	10	36	0	126	0
토 건	5	2	7	0	20	0
공 업	17	6	17	0	41	0
경 영	12	2	16	0	52	0
인 문	10	2	10	0	28	1
계	156	41	165	1	523	5
%	17.5	4.6	18.5	(0.1)	58.7	0.6

B. 가정환경

1) 現 住居條件

〈表 Ⅳ-7〉과 같이 全體 891名中 34.2%(305名)만이 自宅에서 生活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주거환경이 不安定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表 Ⅳ-7〉 주거 실태

	자택	전세	월세	하숙	친척 친지	자취	기숙사	무응답
기 계	122	13	8	100	29	129	38	1
일반공학	72	5	4	47	15	42	17	1
토 건	16	0	1	5	4	6	2	0
공 업	28	7	0	19	2	25	0	0
경 영	35	6	3	6	8	16	8	0
인 문	32	5	1	4	5	4	0	0
계	305	36	17	181	63	222	65	2
%	34.2	4.0	1.9	20.3	7.1	24.9	7.3	0.2

특히 24.9%가 자취生活을 하고 있다는 것은 生活費 절감이라는 經濟的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아 7.3%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기숙사 시설이 대폭 증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며, 아울러 하루 속히 學校 주변에 주택가가 造成되어 絶對的인 공급 부족으로 야기되는 下宿費 인상 요인만이라도 제거되었으면 한다. 또 自宅이나 전세의 경우는 父母와 學生이 함께 生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하숙, 친척, 친지집, 기거, 자취, 기숙사 等은 학생들 끼리 혹은 학생 혼자 生活하는 것으로 볼때 이들(약 60%)은 學校以外에는 전혀 통제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校外 生活指導를 爲한 特別한 對策과 方案이 강구되어야 하며 지도교수와의 끊임없는 對話를 通한 이탈 방지 노력이 필요로 되어진다.

2) 父母의 敎育程度

〈表 Ⅳ-8〉 父母의 학력

	대학원	대학	전문대	고	중	국	무학	무응답
기계계열	2	58	17	124	94	118	26	1
일반공학	3	42	4	61	40	44	9	0
토 건	0	7	2	7	10	6	2	0
공 업	0	3	0	18	19	35	6	0
경 영	1	11	2	18	17	25	8	0
인 문	0	5	2	17	11	14	2	0
계	6	126	25	254	191	242	53	1
%	0.7	14.1	2.8	27.5	21.4	27.1	5.9	0.1

보호자의 학력은 高卒이 27.5%로 가장 높고 國卒 27.1%, 中卒 21.4%, 大卒 14.1%의 순서이다. 따라서 全體 85%(756名)의 學生들의 보호자는 大卒 미만의 학력을 갖고 있음에도 子女들을 大學에 進學시키고 있음은 父母들의 敎育熱이 매우 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만큼 子女들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전문대학 졸업 以上을 기준하여 비교해 보면 토건계열 26.5%, 일반공학계열 23.2%, 기계계열 17.5%의 순서로 父母의 교육 수준이 높다.

3) 가정경제

〈表 Ⅳ-9〉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父母의 직업은 농업이 26.3%, 상업 25.5%로서 全體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원 9.9% 공무원 9.2%의 순이다. 또 無職이 6.4%이며 〈表 Ⅳ-10〉에 나타난 月收入을 보면 20만원 以下가 약 48%이며 30만원 以下는 74.3%(662名)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형편은 아주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며 最近의 경제동향과 다음 學期의 등록금 인상을 고려해 볼때 학교당국은 물론 國家的 차원에서 더 많은 장학금 혜택 확대를 위한 制度的 보장이 선결되어야 하겠다. 또한 성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現行 장학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 극빈 학생에게도 수혜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對策으로는 〈表 Ⅳ-11〉의 부직실태 調査 결과에서 처럼 82.9%의(739名) 學生들이

〈表 Ⅳ-9〉 父母의 직업별 현황

	농 업	공 업	상 업	건설업	수산업	운수업	공무원	교 원	회사원	기 타	무 직
기계계열	110	25	102	7	7	14	35	29	43	35	33
일반공학	45	5	57	3	5	8	29	5	21	16	9
토 건	6	2	6	1	0	1	4	5	5	1	3
공 업	29	3	22	5	0	3	5	1	6	4	3
경 영	33	4	19	2	0	1	6	3	6	2	6
인 문	11	0	21	0	1	1	3	2	7	2	3
계	234	39	227	18	13	28	82	45	88	60	57
%	26.3	4.4	25.5	2.0	1.5	3.1	9.2	5.1	9.9	6.7	6.4

〈表 Ⅳ-10〉 父母의 月收入

	10만원미만	1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50만원이상	무 응 답
기 계 계 열	70	135	123	56	33	16	7
일 반 공 학	29	55	54	16	25	17	0
토 건	2	11	10	7	3	0	1
공 업	18	35	19	4	2	3	0
경 영	24	24	18	6	1	7	2
인 문	9	13	13	6	5	2	3
계	152	273	237	95	69	45	13
%	17.1	30.6	26.6	10.7	7.7	5.1	1.5

〈表 Ⅳ-10〉 副 職 實 態 ( )안은 백분율

항목 \ 계열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갖고있다.	10	4	0	1	5	3	23(2.6)
원한다.	371	167	27	67	66	41	739(82.9)
필요하지 않다.	58	31	6	13	11	7	126(14.1)
무응답	1	1	1	0	0	0	3(0.3)

원하고 있는 부직을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方法 또한 다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부직을 갖고 있는 學生의 全體의 2.6%(23名)에 불과한 것은 國家施策에 의해 學生들이 가정교사를 할 수 없게 된것이 큰 原因으로 간주된다.

4) 가정 분위기

本校生들은 全體의 1/4 이 고민이 없다고 하였으며 고민이 있다는 學生中 그 內容은 經濟問題가 22.1%로 으뜸이고, 부모의 지나친 기대 19.4%, 父母의 理解不足이 15.3%이다. 이처럼 가정內의 고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表 Ⅳ-13〉처럼 全體의 61%에 해당하는 學生이 가정분위기가 安定的이라고 하였으며 가정분위기가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學生은 10%에 불과하다. 〈表 Ⅳ-14〉의 가출경험 有無에 관한 調査에서도 약 90%가 家出경험이 없다고 하여 가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가정에 대해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家出경험이 있는 學生이 85名(9.5%)이 있음은 學生指導라는 側面에서 볼때 간과할 수 없으며 個別面談指導, 그룹指導등을 通하여 啓導해야할 과제이다.

〈表 Ⅳ-12〉 가정생활에서의 고민내용

계열 / 항목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생활이 곤란하다.	100	30	4	24	24	15	197(22.1)
부모 직업이 싫다.	5	1	0	0	1	0	7(0.8)
부모사이의 불화가 잦다.	9	8	1	3	2	0	23(2.6)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다.	84	41	6	17	18	7	173(19.4)
부모의 애정이 부족하다.	9	2	0	0	0	3	14(1.6)
현재같에 나옥이 맞지 않는다.	11	9	1	4	3	4	32(36)
부모의 이해가 부족하다.	73	20	7	12	15	9	136(15.3)
집이 너무 좁다.	9	6	2	2	2	0	21(2.4)
그저 우엇인가 싫다.	19	16	5	4	4	5	53(5.9)
고민 없음.	113	68	6	15	13	8	223(5.0)
무응답	8	2	2	0	0	0	12(1.3)

〈表 Ⅳ-13〉 가정의 분위기

계열 / 항목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매우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15	40	6	11	11	8	141	15.8
비교적 안정감이 오버 편안하다.	205	92	12	36	31	26	402	45.1
그저 그렇다.	120	54	14	19	32	12	251	28.2
비교적 불안하고 불편하다.	38	16	2	14	7	5	82	9.2
아주 불안하고 불편하다.	9	0	0	1	1	0	11	1.2
무응답	3	1	0	6	0	0	4	0.4

〈表 Ⅳ-14〉 家出經驗 有無

계열 / 항목	계	일반공학	토건	공업	경영	인문	계	%
없다	697	185	31	75	70	46	804	90.2
1회	28	9	1	3	4	3	48	5.4
2회	7	4	0	3	3	1	18	2.0
3회	2	0	2	0	2	0	6	0.7
그이상	5	4	0	0	3	1	13	1.5
무응답	1	1	0	0	0	0	2	0.2

2. 人生觀과 當面問題

A. 人生의 目標

本校生의 삶의 목표를 물어본 결과 上記 〈表Ⅳ-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人生을 즐겁게 산다」가 各 계열 중히 第一位를 차지하고 있어 全體의 42.5%이며 「國家社會를 爲해 봉사한다」가 22.9%, 「열심히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가 21.5%이며, 「적당히 산다」는 학생은 불과 1.8%인데 비추어 볼때 너무

〈表 Ⅳ-15〉 生의 目標

항목 \ 계열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착실히 공부하여 명성을 날린다.	59	25	2	7	12	15	120	14.7
열심히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37	10	4	13	7	1	192	21.5
인생을 즐겁게 산다.	197	85	22	35	24	16	379	42.5
국가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104	46	3	20	21	10	204	22.9
적당히 산다.	21	14	0	0	6	2	43	4.8
기 타	21	23	3	6	10	7	70	7.8
무응답	1	0	0	0	2	0	3	0.9

〈表 Ⅳ-16〉 價 値 觀

	명 예	돈	권 력	학 벌	건 강	친 구	애 인	화목한 가 정	기 타
기 계 계 열	21	24	30	13	75	78	21	170	8
일 반 공 학	21	8	12	3	35	35	9	71	9
토 건	4	4	1	1	9	2	1	11	1
공 업	3	7	2	2	18	9	2	35	3
경 영	7	9	6	4	17	11	1	24	3
인 문	6	5	4	3	11	4	5	12	1
계	62	57	57	26	175	139	39	323	25
%	6.9	6.4	6.4	2.9	19.6	15.6	4.4	36.3	2.8

現實的이며 實利的이기는 하나 비교적 건실한 목표하에 살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국가의식이 부족한 일면도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學生들의 價値觀을 調査해 본 결과〈表 Ⅳ-16〉 화목한 가정(36.3%), 건강(19.6%), 친구(15.6%)의 순서로 택하고 있어, 〈表 Ⅳ-15〉의 「人生을 즐겁게 산다」와 일맥상통한 바 있으며, 명예, 돈, 權力, 학벌등을 추구하는 비율이 저조함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은 경향은 각계열이 유사하다.

B. 現生活의 만족

〈表 Ⅳ-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現在의 生活에 만족인 學生은 47%, 불만족인 學生이 53%로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他계열에 비해 토건계열은 55.9%가 불만족이라고 反應하여 불만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表 Ⅳ-17〉 現生活에의 만족도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만족한다.	52	19	7	10	4	4	96	10.8
만족한 편이다.	163	64	6	37	30	21	321	36.0
다소 불만이다.	164	96	19	31	35	21	366	41.1
불만이다.	60	23	2	3	13	5	106	11.9
무응답	1	1	0	0	0	0	2	0.2

C. 現在 當面하고 있는 問題

〈表 Ⅳ-18〉과 같이 현재 學生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大別되는데 학비조달(20.2%), 學校生活 및 學業성적(19.9%), 장래 進學 및 취업(19.3%)等 학업수행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敎授들과의 끊임없는 對話를 通하여 해결되어질 문제로 보인다. 다른 部分은 병역(10.1), 사회생활과 적응(6.9%), 성격(6.8%), 여가선용(5.2%)등에 관한 문제로서 보다 많은 교양강좌개최, 독서지도 및 권장, 다양한 써클활동, 봉사활동의 장려等

〈表 Ⅳ-18〉 現在 당면한 문제

	병역	학비조달	진학및취업	이성및결혼	성격	가정	학교생활및학업성적	건강	사회생활과적응	여가선용	친구	종교	정치	무응답
기계계열	41	92	92	13	31	6	77	14	28	26	8	6	2	4
일반공학	24	30	43	4	13	1	57	6	14	1	2	4	3	1
토 건	3	2	6	1	3	1	6	2	5	4	1	0	0	0
공 업	8	20	9	0	4	3	22	2	5	6	1	1	0	0
경 영	9	25	13	3	4	2	10	3	6	5	0	0	1	1
인 문	4	11	9	4	6	1	5	0	4	4	0	1	1	1
계	89	180	172	25	61	14	177	27	62	46	12	12	7	7
%	10	20.2	19.3	2.8	6.8	1.6	19.9	3.0	6.9	5.2	1.3	1.3	0.8	0.8

을 통해 스스로가 갖고 있는 問題點을 發見하고 치유·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反面 宗教, 政治, 交友關係, 異性問題에 對하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c. 相談對象

곤실한 個人問題가 있을때 누구와 상담을 하는지 알아본 결과 全體 學生의 54.9%가 친구 및 선배를 택하고 있으며, 〈表 Ⅳ-19〉의 결과 처럼 사회지명인사 및 교수들과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토건, 공업, 경영계열에서는 단 1名도 교수를 상담대상자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敎授·學生間의 關係에 對話의 벽이 높음을 보여준다.

〈表 Ⅳ-19〉 個人問題 상담 대상자

	부	모	형제자매	친척	모교교사	친선구배	사회저명인사	교수	종교계인사	무응답
기계계열	45	49	76	8	1	245	1	2	6	7
일반공학	18	25	32	4	0	115	0	3	2	4
토 건	4	4	4	1	1	18	0	0	0	2
공 업	10	10	15	0	0	41	0	0	3	2
경 영	9	11	11	2	2	44	1	0	0	2
인 문	2	9	9	1	0	27	0	1	0	2
계	88	108	147	16	4	490	2	6	11	19
%	9.9	12.1	16.5	1.8	0.4	54.9	0.2	0.7	1.2	2.1

3. 大學進學 및 전공계열 선택

A. 大學進學

〈表 Ⅳ-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本校 新入生이 大學에 入學한 동기중 일반공학·토건계열은 취업준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경영·

〈表 Ⅳ-20〉 大學進學 動機

	학문수련	인격수련	지도자적자질계발	취업준비	결혼조건구비	주위권유	기타	무응답
기계계열	69	117	90	117	3	14	28	2
일반공학	42	41	28	67	1	7	14	3
토 건	1	9	4	13	1	3	3	3
공 업	12	27	12	20	0	3	6	1
경 영	19	25	15	11	1	6	5	0
인 문	13	18	7	8	0	1	3	1
계	156	237	156	236	6	34	59	10
%	17.5	26.6	17.5	26.5	0.7	3.8	6.6	1.1

인문계열은 인격수련을 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인격수련 26.6%, 취업준비 26.5%, 지도자적 자질계발 17.5%, 학문수련 17.5%로서 大學의 理想과 現實이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反面 맹목적으로 보이는 주위의 권유나 결혼조건구비等에 대한 반응율은 매우 낮아 거의가 뚜렷한 목적으로 大學에 進學한 것으로 보여진다.

B. 本大學 入學 動機

國內 103個 四年制大學中 本校를 擇하게된 動機를 조사해본 결과 32.2%가 合格 가능성 때문이며, 20.5%가 높은 취직율, 19.1%가 마음에 드는 전공학과, 12.7%가 많은 장학금, 8.9%가 좋은 시설에 응답하고 있어 우선 合格하고 보자는 心理가 크게 作用한 것으로 보여진다. 反面 훌륭한 교수진이나 大學의 전통은 본교 新入生의 경우 대학 선택과는 별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表 Ⅳ-21〉 本大學 入學 動機

항 목 \ 계 열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훌륭한 교수	10	10	0	0	2	0	22	2.5
전통있는 대학	2	2	1	1	1	0	7	0.8
좋은 시설	52	20	2	4	1	1	80	8.9
높은 취직율	107	37	7	16	11	7	185	20.8
많은 장학금	57	22	2	3	19	10	113	12.7
합격 가능성	128	93	14	40	25	17	287	32.2
마음에 드는 전공학과	68	43	7	16	21	15	170	19.1
무응답	16	6	1	1	2	1	27	3.0

C. 本校를 알게된 경위

〈表 Ⅳ-22〉는 本大學을 어떻게 알게되었나에 대한 反應分布로서 36.4%(324名)의 學生들이 大學案內書를 通하여 알게되었다고 하였으며, 다음은 모교교사 15.0%, 친구 13.3%, 각종잡지 12.9%, 부모형제 8.8%의 순서이다. 따라서 大學案內書가 本校를 알리는 가장 効果的인 매체임을 알수 있으며 결국 내용이 充實한 大學案內書를 만들어 보다 광범위하게 배포한다면 本大學에 對한 좋은 이메지를 형성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表 Ⅳ-22〉 本大學을 알게된 경위

	부모형제	모교교사	친 척	친 구	본교재학생	각종잡지	대학안내서	일 간 지	무응답
기계계열	34	68	21	61	28	53	168	4	3
일반공학	16	25	4	31	17	32	73	1	4
토 건	3	5	2	5	3	3	13	0	0
공 업	6	14	2	10	9	13	27	0	0
경 영	10	16	2	8	6	10	28	1	1
인 문	9	6	2	4	8	4	15	0	3
계	78	134	33	119	71	115	324	6	11
%	8.8	15.0	3.7	13.3	7.9	12.9	36.4	0.7	1.2

D. 現在의 전공계열 선택동기 및 만족도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要因은 취미와 적성으로 46.4%이며 장래의 취업을 고려한 선택은 10.4%, 合格할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學生은 4.9%에 불과하다. 또 전공계열에 대한 에메지식은(〈表 Ⅳ-24〉 참조) 잘알고 있었다가 14.9%, 대강 알고 있었다가 65.9%로서 80.8%의 학생들은 전공계열의 性格을 어느정도 알고 지원한 것으로 보여지며〈表 Ⅳ-21〉의 결과와 비교해 볼때 合格가능성과 자신의 취미적성과 전공계열의 性格을 充分히 고려하여 本大學의 現계열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학년 진급시 전공학과 선정과정에서도 본인의 希望이 充分히 반영되어 전공학과가 決定되어 진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가 가능할 것이다.

〈表 Ⅳ-23〉 現 전공계열 선택 동기

	취미, 적성	장래취업	미개척 학문분야	주위권유	합격용이성	우수한교수	무 응 답
기 계 계 열	193	153	44	27	19	0	4
일 반 공 학	90	62	32	8	8	2	1
토 건	18	10	1	4	0	0	1
공 업	39	18	11	5	7	0	1
경 영	46	22	3	6	5	0	0
인 문	27	11	2	5	5	0	1
계	413	276	93	55	44	2	8
%	46.4	30.9	10.4	6.1	4.9	0.2	0.9

〈表 Ⅳ-24〉 전공계열에 대한 예비지식 정도

항목 \ 계열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잘 알고 지원했다.	48	23	3	34	19	6	133	14.9
대강 알고 지원했다.	294	140	27	41	52	33	587	65.9
잘 모르고 지원했다 .	83	33	4	5	10	12	147	16.5
전혀 모르고 지원했다.	12	5	0	1	1	0	19	2.1
무응답	3	2	0	0	0	0	5	0.6

〈表 Ⅳ-25〉 전공계열에 대한 만족도

계열 \ 항목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만족한다.	140	72	19	33	42	22	326	36.6
그저 그렇다.	165	77	9	28	33	21	333	37.4
불만족이다.	112	42	5	14	6	8	187	20.9
모르겠다.	20	10	1	6	1	0	38	4.3
무응답	3	2	0	0	0	0	5	0.6

그러나 本校 入學後 現在의 전공계열에 대한 만족도를 調査해 보면 〈表 Ⅳ-25〉의 결과처럼 36.6%만이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문사회학부와 공학부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人文社會學部(48.0%)가 工學部(34.8%)에 비해 현 전공계열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계계열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반응은 31.8%로 他계열에 비해 낮으며 불만족이라는 反應은 25.5%로 가장 높다.

4. 大學生活에 대한 인상

A. 울산공대觀

本校 新入生中 울산공대를 일류대학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6.8%에 불과한 반면 평범한 大學에 68.4%, 이류수준의 大學에 23.5%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다수의 학생들은 本校에 대해 평범한 大學

〈表 Ⅳ-26〉 울산공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목 \ 계열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유수한 일류대학	34	11	5	6	3	2	61	6.8
보통 수준의 평범한 대학	313	137	22	57	45	35	609	68.4
이류 수준의 대학	89	47	7	18	34	14	209	23.5
무응답	4	8	0	0	0	0	12	1.3

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表 Ⅳ-27〉과 같이 현재 이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의 수는 47.0%(419名)로서 입학 당시의 생각보다는 1학기를 生活해본 현재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는 학생(26.2%)보다 훨씬 많음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表 Ⅳ-27〉 울산공대觀의 변화정도

항목 \ 계열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훨씬낫다	42	11	4	8	2	3	70	7.9
조금낫다	84	40	4	12	10	14	164	18.4
비슷하다	111	56	7	23	19	14	230	25.8
조금못하다	127	66	15	26	35	17	286	32.1
아주못하다	74	25	3	12	16	3	133	14.9
무응답	2	5	1	0	0	0	8	0.9

B. 오리엔테이숀

신입생들이 大學에 입학후 처음으로 大學生活에 대한 예비지식을 습득하고 앞으로의 生活을 設計하는 계기가 新入生 오리엔데이숀으로 이는 매우 重要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表 Ⅳ-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좋고 유익하였다는 學生은 18.4%에 불과하고 52.1%는 그저그렇다한 반면 28.7%는 좋지않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表 Ⅳ-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新入生들이 오리엔테이숀을 통해 알고 싶어하는 事項 즉 전공 부전공의 선택(21.4%), 학생 후생복지 시설(18.3%) 효과적인 학습방법(14.9%) 각종 써클활동(9.2%) 等을 감안한 보다 성의있고 알찬 내용의 오리엔테이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로 된다.

〈表 Ⅳ-28〉 오리엔테이숀에 대한 소감

항목 \ 계열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매우좋다	11	6	0	0	1	0	18	2.0
좋다	75	34	3	16	8	10	146	16.4
그저그렇다	224	105	21	40	47	27	464	52.1
좋지않다	94	40	6	20	13	10	183	20.5
매우 좋지않다	33	14	4	5	13	4	73	8.2
무응답	3	4	0	0	0	0	7	0.8

〈表 Ⅳ-29〉 오리엔테이숀을 통해 알고 싶었던 사항

항 목 \ 계 열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학칙	13	7	1	9	3	2	35(3.9)
전공, 부전공의 선택	103	61	5	5	11	6	191(21.4)
학교 주요시설 배치	25	13	3	8	8	1	58(6.5)
기숙사 이용	15	7	1	5	1	2	31(3.5)
효과적 학습방법	58	29	4	16	11	15	133(14.9)
학교의 전통	12	8	1	1	2	1	25(2.7)
각종 써클활동	47	10	6	6	11	2	82(9.2)
학생복지 후생시설	80	32	7	24	13	7	163(18.3)
장학금 수혜 절차	48	19	1	5	6	9	88(9.9)
수강 절차	5	3	1	1	4	1	15(1.7)
교수진 소개	29	10	1	1	12	5	58(6.5)
무응답	5	4	3	0	0	0	12(1.3)

C. 써클활동

本校 新入生들은 전체의 24.1%가 써클活動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인문계열이 39.2%로 가장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다음이 일반공학계열의 28.6%이다. 또 참여할 예정인 學生이 30.5%, 좀 더 두고 보겠다는 學生이 33.6%로서 다양하고 活發한 써클이 등장한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써클活動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表 Ⅳ-30〉 써클活動에의 참여 정도

항목 \ 계열	기계	일반공학	토건	공업	경영	인문	계	%
적극 참여하고 있다	95	58	7	18	17	20	215	24.1
참여할 예정이다.	149	48	9	31	22	13	272	30.5
좀 더 두고 보아야 알겠다	146	70	12	30	30	11	299	33.6
참여 안할 예정이다	47	24	6	2	13	6	98	11.0
무응답	3	3	0	0	0	1	7	7.9

〈表 Ⅳ-31〉 희망하는 써클活動

항목 \ 계열	기계	일반공학	토건	공업	경영	인문	계	%
학술활동	71	37	10	14	18	11	161	18.1
예술활동	68	26	8	10	15	15	142	15.9
종교활동	28	9	0	7	3	3	50	5.6
체육활동	88	40	4	18	14	6	170	19.1
봉사활동	102	51	6	13	22	5	199	22.3
친목·오락활동	81	35	6	19	10	9	160	17.9
무응답	2	5	0	0	0	2	9	1.0

한편 學生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써클활동 영역은 〈表 Ⅳ-31〉처럼 대체로 고른 分布를 보이고 있는데 계열별로 보면 기계, 일반공학, 경영계열은 봉사활동을 인문·토건계열이 학술활동, 공업계열은 친목오락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全體的으로 比較해 보면 봉사활동, 체육활동, 학술활동으로 집약될 수 있다.

5. 敎授·學生關係

A. 自己評價

本校 新入生中 61.8%는 자신의 지능지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중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學生은 5.9%에 불과하다. 반면 자신의 지능지수가 낮다고 반응을 보인 學生은 35.4%이며 그래도 열심히노력한다고 하는 學生은 22.7%이다. 따라서 〈表 Ⅳ-32〉에서와 같이 지능지수와 관계없이 노력하지 않는 學生의 수는 68.6%에 달하고 있어 학생들 자신이 면학에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Ⅳ-32〉 自己 評價

항목 \ 계열	기계	일반공학	토건	공업	경영	인문	계	%
지능지수가 높으며 꾸준히 노력한다	26	10	3	5	4	5	53	5.9
지능지수는 높으나 노력은 안하는 편이다	257	113	16	39	50	23	498	55.9
지능지수는 낮지만 꾸준히 노력한다	103	38	11	28	17	15	202	22.7
지능지수도 낮지만 노력도 안하는 편이다	50	37	3	9	10	4	113	12.7
무응답	4	5	1	0	1	4	15	1.7

B. 敎授에 對한 신뢰와 존경

〈表 Ⅳ-33〉은 學生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敎授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지 그 기준을 調査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學生들과의 人間關係, 강의와 硏究充實等이 높이 評價되고 있으며 敎授들의 생활태도

〈表 Ⅳ-33〉 敎授에 對한 신뢰, 존경 기준

항 목 \ 계 열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강의와 연구충실	163	75	9	26	32	18	323	36.3
생활태도	10	11	3	2	3	0	29	3.3
사회적 활동, 명성	5	3	1	1	3	2	15	1.7
학생들과의 인간관계	255	108	18	51	40	31	503	56.5
복장, 언어상의 품위	5	4	3	1	4	0	17	1.9
무응답	2	2	0	0	0	0	4	0.4

〈表 Ⅳ-34〉 敎授와 學生間의 對話 程度

항 목 \ 계 열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매우 잘되고 있다	3	2	0	1	1	0	7	7.9
잘되고 있는 편이다	21	17	3	8	5	8	62	6.9
보통이다.	66	34	7	24	11	9	151	16.9
잘되지 않고 있다	224	106	20	36	43	20	449	50.4
전혀 되고 있지 않다	125	43	4	12	22	14	220	24.7
무응답	1	1	0	0	0	0	2	0.2

사회적활동이나 명성, 복장, 언어상의 품위등은 별로 문제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C. 敎授·學生間의 對話

敎授와 學生間에 어느 정도의 對話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알아본 결과인 〈表 Ⅳ-34〉의 내용을 보면 매우 비관적이다. 긍정적인 반응은 7.7%에 불과한 반면 잘되고 있지 않다는 反應은 무려 75.1%에 이르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각 계열의 공통적인 것으로 왜 교수와 學生間의 대화가 부진해지고 있는가 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表 Ⅳ-35〉) 學生들이 교수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 主要因으로 나타나 있으며 (71.8%), 교수의 권위적인 태도 또한 16.5%로 나타나 있다. 결국 학생들은 교수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려고 능동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 것이며 교수들은 意圖的으로라도 학생들과 對話의 기회를 자주 만든다면, 學生들은 교수들을 신뢰·존경하며 교수들은 對話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表 Ⅳ-35〉 敎授·學生間의 對話 부진이유

항 목 \ 계 열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교수의 대화 불응	13	4	1	5	5	2	30	3.4
학생의 느끼는 교수에 대한 거리감	321	145	20	61	55	38	640	71.8
교수의 권위적 태도	69	33	10	13	18	4	147	16.5
대화의 필요성 없음	34	19	2	2	3	5	65	7.3
무응답	3	2	1	0	1	2	9	1.0

6. 嗜好 및 異性觀

A. 흡 연

本校의 新入生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흡연중에 있는 학생의 50.9%로서 흡연하지 않는 학생(36.8%) 보다 많은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 흡연을 할 예정인 학생이 9.5%인데 비해 금연할 예정인 學生은 36.7%이므로 실제로 금연 學生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B. 음 주

음주를 기피하는 學生은 全體의 12.2%인데 비해 좋아하는 學生은 43.8%로서 더 많은 편이며 계열별로는 기계계열이 가장 좋아하며, 다음이 경영·공업계열의 순서이다.

〈表 Ⅳ-36〉 흡연 問題

항목 \ 계열	기 계	일반공학	토건	공업	경영	인 문	계 (%)
꼭 피워야 한다	104	48	5	12	13	7	189(21.2)
현재 피우고 있으나 끊을 예정이다	182	83	16	25	35	13	354(39.7)
현재 안피우고 있으나 앞으로 피울 예정이다	36	20	3	16	6	4	85(9.5)
계속 안피울 예정이다.	110	45	9	26	28	25	243(27.3)
무응답	8	7	1	2	0	2	20(2.2)

〈表 Ⅳ-37〉 음주 문제

항목 \ 계열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매우 좋아한다	48	24	4	6	11	4	97	10.9
좋아한다	148	67	9	31	28	11	294	32.9
그저 그렇다	192	84	20	34	30	23	383	42.9
싫어한다	36	14	1	6	9	7	73	8.2
아주 싫어한다	14	10	0	4	4	4	36	4.0
무응답	2	4	0	0	0	2	8	0.9

C. 異性觀

〈表 Ⅳ-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異性交際를 하고 있는 學生은 32.8%이며 사귀고 있지 않는 학생은 15.5%이다. 그러나 사귀고 싶어도 적당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50.7%이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의 異性交際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Ⅳ-38〉 이성교제 유무

계 열	사귀고 있다	사귀고싶으나 적당한친구가 없다	사 귀 고 있지않다	무응답
기계계열	144	223	70	3
일반과학	55	113	31	4
토 건	13	14	6	0
공 업	31	38	12	0
경 영	29	40	13	0
인 문	20	24	6	1
계	292	452	138	8
%	32.8	50.7	15.5	0.9

또한 이들이 생각하는 이성교제는 〈表 Ⅳ-39〉와 같이 결혼과는 상관없이 순수한 友情이어야 한다는 學生이 60.8%로 압도적이며 결혼을 고려하고 사귀어야한다는 학생은 16.0%에 불과하다.

한편 배우자의 혼전 순결에 대하여 토건계열은 양쪽이 반반씩이나 일반공학·경영·인문계열은 혼전 순결은 꼭지켜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특히 인문사회학부는 공학부에 비해 월등히 혼전 순결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학생은 44.5%이며 융통성을 보이고 있는 학생은 42.7%이다.

〈表 Ⅳ-39〉 大學生活中 異性交際觀

항 목 \ 계 열	기계	일반공학	토건	공업	경영	인문	계(%)
결혼상대자로 잘 선택하여 교제한다	71	27	6	15	12	12	143(16.0)
결혼과는 무관한 순수한 우정으로 교제한다	71	130	17	49	50	25	542(60.8)
결혼·우정과 관계없이 가벼운 데이트 상대로 사귄다	85	39	9	15	18	11	177(19.8)
대학생활중 이성교제는 필요없다	10	0	1	2	2	2	17(1.9)
무응답	3	7	1	0	0	1	12(1.3)

〈表 Ⅳ-40〉 배우자의 혼전 순결

항 목 \ 계 열	기 계	일반공학	토 건	공 업	경 영	인 문	계	%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179	84	16	36	51	31	397	44.5
꼭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6	80	16	39	24	15	381	42.7
생각해본 바 없다.	50	34	2	5	7	5	103	11.6
무응답	5	5	0	0	0	0	10	1.1

Ⅴ. 要約 및 結論

以上의 調査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1980學年度 本校 新入生中 본적지가 경남·부산인 學生은 全體의 55%이며 出身 高等學校 分布는 全國의 194個高校이다. 평균 연령은 19.5세로서 이는 재수생이 전체의 33.7%를 차지하고 있음에 기인된 현상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심리적, 敎育的 배려가 요망된다.

(2) 대체적으로 住居환경이 不安定하며 자취학생이 24.9%에 달하고 있어 기숙사 시설문제가 제기된다. 학부모의 學歷은 85%가 大卒 미만이며 농업과 商業이 大部分으로 月收入 20만원 이하인 가정이 48%이므로 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고민내용도 경제적인 문제가 으뜸이며, 부직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반면 가정의 분위기는 원만한 편이다.

(3) 新入生들의 人生目標는 人生을 즐겁게 사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現實生活에서는 만족·불만족의 分布가 비슷하다. 學生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역시 학업수행과 관련되는 사항들이며 상담대상자로는 교수보다 오히려 친구·선배를 대하고 있다.

(4) 大學에 진학하게된 동기는 주로 인격수련과 취업준비를 위한 것으로 本校에 대하여는 大學案內書를 通하여 알게 되었으며 주로 合格 가능성을 보고 本校에 지원하여 입학하였다. 현재의 전공계열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현재 만족하고 있는 學生은 37%에 불과하여 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불만요인을 해소시키는 일이 매우 重要視된다.

(5) 新入生들의 68%는 本校를 平凡한 수준의 大學으로 생각하고 입학하였으나 入學後 現在 이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된 學生이 47%임은 大學이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事項이다. 新入生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더 개발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지며 써클活動에도 24%의 학생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예정인 학생이 31%나 되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6) 大部分의 학생들이 자신의 지능지수는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을 評價하고 있으며 교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기준은 학생들과의 人間關係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敎授와 學生들간의 對話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學生들이 敎授들에게 너무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에 기인된 것으로 파악 보다 開放的인 자세로 대하여야 하겠다.

(7) 비록 재수생의 비율이 많으나 대부분 흡연과 음주를 즐기고 있으며 異性交際는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배우자의 혼전 순결에 대하여는 45%가 꼭 지켜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으며 43%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어 바람직한 性敎育이 필요시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高興化：新入生의 實態와 그들의 當面 問題, 高麗大學校生活指導硏究所, 1977.
- 文敎統計年報：서울, 공화출판사, 1964.
- 서강대학교 생활지도실：生活指導를 爲한 新入生現況 調査, 1978.
- 이성대外：1974년도 계명대학 신입생집단의 特性 계명대指導硏究所 지도상담 제2집, 1975.
- 전규식：79년도 부산대학 신입생 실태조사,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제15집, 1979.
- 青少年白書：국무총리 기획조정실, 1979.
- 학생지도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全國大學(校) 學生處(課)長 協議會, 1979.